

북카페 비숍과 내서재

책과 한잔의 차,
침이 어우러지는 곳

여행 북카페 비숍 “책은 여행길의 좋은 친구”

홍대 주차장 거리를 지나 조용한 골목길 2층에 자리한 여행 북카페 비숍에 들어서면 세계지도가 펼쳐져 있는 큼직한 테이블과 곳곳에 놓여 있는 이국적인 소품들이 눈길을 끈다. 비숍의 금상균 대표가 해외 여행길에서 손수 수집해온 것들로 여행이 주는 설렘과 낭만적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이곳은 여행을 떠날 이들과 여행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정보와 휴식과 만남을 제공하는 쉼터이다.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금 대표는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차 한 잔 하면서 차분히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북카페를 열게 되었다. “목적지에 대한 정보 입수와 루트 짜기, 여행지에 대한 공부와 이해 등 사전 준비 없이 가는 여행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비숍이란 독특한 이름엔 의미 있는 사연이 담겨 있다. 1844년 23세의 나이로 홀로 리버풀에서 뉴욕까지 여행길에 올랐던 영국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란 여성이 있었다. 19세기 말 당시 여자의 몸으로 해외 여행을 나서는 것은 사회적 사건이 될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는 이후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고 여행기를 담은 책도 냈다. 비숍은 타고난 약한 몸과 편견, 환경의 제약을 극복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북카페 비숍의 금상균 대표

“비숍이 생각하는 여행은 단순한 풍물기행이 아니라 여행지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었죠. 북카페 비숍은 그의 강한 용기와 도전 정신을 본받고 싶은 마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곳에서는 여행 관련 서적과 인터넷을 통해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얻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한편, 공간 한 쪽에 작은 사무실이 같이 있어 티켓팅을 비롯한 여행사 업무도 볼 수 있다. 한 공간 안에서 여행 루트 짜기부터 항공권 예약까지, 여행에 관련된 A부터 Z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알찬 공간인 것이다.

이런 편리함 외에도 비숍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책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이라는데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책장에 비치된 책들을 무료로 마음껏 갖다 볼 수 있다. 다양한 여행 가이드북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중남미 등 지역별로 정리되



북카페 비숍

어 있어서 원하는 책을 쉽게 골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여행 에세이, 기행문, 사진집 등 여행 관련 도서들과 소설, 에세이 등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구비되어 있다.

금 대표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상담을 해주고 루트를 짜주기도 한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손수 수집한 현지 정보를 모아 놓은 스크랩북을 통해 그만의 노하우를 전수해준다. 그는 충실한 정보가 담긴 여행 가이드북 몇 종도 권해줬다. 큐리어스 시리즈(취슬러)는 외국인 저자가 실제로 체류한 지역에 대한 소개를 외국인의 시선에서 쓴 책이다. 낯선 이방인이자 방문객의 관점에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제멋처럼 여행객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대리 충족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 가이드북의 원조로 유명한 론리 플래닛(안그래픽스)은 정확한 지도가 강점이다. 일반 가이드북들은 다루지 않는 지역 - 이란, 쿠웨이트, 시베리아 등 - 까지 다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 대표는 “포토에세이나 기행문 같은 책들은 여행에 대한 자신의 감성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된다” 며 여행의 동반자로 두껍지 않은 에세이 한두 권을 권했다. “타지에서 뜻하지 않은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비숍에서는 최근 유럽여행 설명회와 인도여행 설명회 등을 가졌다. 여행 동아리 정모 등을 통해 여행을 좋아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자 해서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 금 대표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여행자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는 것”이다.

북카페 내서재 “책을 품은 향기롭고 아늑한 공간”

삼청동은 오래된 골목길 주변으로 나지막한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주택가 사이로 독특하고 예쁜 옷과 장신구를 파는 작은 가게, 찻집과 식당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예스럽고도 세련된 멋이 있는 동네이다. 그 거리에 맞춤처럼 잘 어울리는 조용하고도 아늑한 북카페가 하나 들어섰다. 커다란 노란색 간판과 초록색 문이 달린 입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내서재’가 그곳이다.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만큼이나 단정한 인상의 정은주 사장은 “책을 너무 좋아해서 서점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북카페를 열게 되어 너무 좋다”며 미소를 지었다.

한 쪽 벽면엔 짙은 초록빛의 나무 책장에 책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져 있고, 바(bar) 안쪽에서는 은은한 커피향이 풍긴다. 실내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결이 살아 있는 갈색 나무 탁자와 목심한 의자가 손님을 맞는다. 바깥 쪽 테라스에 마루를 놓고 작은 탁자를 내놓아 거리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게 했다.

10여 년 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북카페를 연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우려도 많았지만 정 사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북마스터가 되고 싶어서 대형 서점을 찾아가 상담을 한 경험도 있을 정도로 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그가 꾸민 서재엔 1년여에 걸쳐 목록을 작성하고 수집한 3,000여권의 책이 꽂혀 있다.

“문학, 예술, 인문 교양 분야 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책의 선정 기준은... 제가 읽고 싶은 책이죠.(웃음) 개인적으로는 심리학, 철학, 역사 쪽에 관심이 많아요. 우주천문학도 좋아하는데 일반인들이 읽기엔 너무 전문적이어서 여기에 비치하지는 않았어요.”

책을 보는 안목이 남다른 그이지만, 내서재는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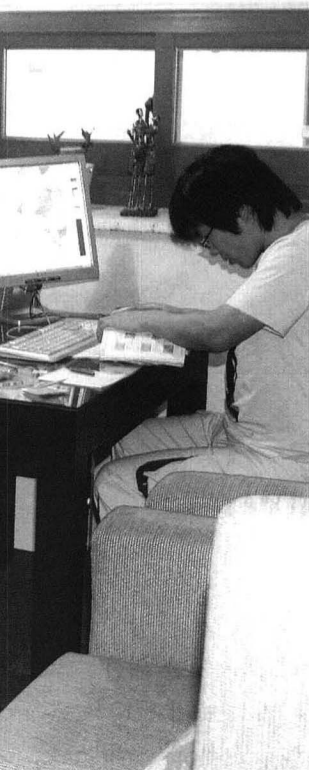
청동을 오가는 행인들이 차 한 잔 하며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만큼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베스트셀러나 에세이도 비치해 놓았다. 손님들에게 책을 권해 주고 원하면 판매도 하는데, 간혹 어떤 손님들은 이런 책이 좋다고 알려주기도 한다. 또, 모르는 손님들끼리 마음이 통해 서로 관심 있는 책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고.

정 사장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동네인 삼청동에서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어 행복하다면서 그 행복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했다. “내서재라는 이름처럼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서재에 온 것처럼 편안히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고 고풍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 맛있는 커피와 책을 직접 골라주는 주인의 정성이 있어서인지 개업한지 한 달도 안되었지만, 벌써 단골 손님이 생길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한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책 읽는 손님들이 많아서 뿌듯하다는 정 사장은, “이 곳은 혼자 와서 오랜 시간 머물다 가도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곳”이라며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심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

비숍: 02)322-7719 내서재: 02)730-1087

취재: 김지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북카페 내서재의 정은주 사장



북카페 내서재